

주임신부: 김대하 (요한 사도)
 본당회장: 권병학 (요한 사도)
 TEL: (905) 545-3004
 FAX: (905) 545-7895

사순 시기

예수님의 얼굴은 해처럼 빛났다.
(마태 17,2)

| 미사 시간 | |
|--------------------|-----------------------------------|
| 미 사 | 주일 11 시 (본당) 주일 17 시 30 분 (공소) |
| 평 일 | 매주(화) 20 시 |
| | 매주(수) 11 시 |
| | 매월 첫(목) 19 시 |
| 성모 신심 미사 십자가의 길 | 매월 첫(토) 11 시 |
| 성시간 | 매월 첫(목) 19 시 미사 중 |
| 성사 일정 | |
| 고해성사 | 미사 전, 후 |
| 견진성사 | 2 년에 1 회 |
| 유아세례 | 매월 마지막 주일 |
| 혼인성사 | 6 개월 전 면담 |
| 병자성사 | 병환 중/임종 전 |
| 교리 시간 | |
| 예비자 교리 | |
| 견진 교리 | |
| 신심 단체 | |
| 자비의 모후 Cu | 매월 2 주 미사 후 |
| 셋별 Pr. | 매주 주일 9 시 30 분 |
| 평화의 모후 Pr. | 매주 화요일 18 시 30 분 |
| 천상의 어머니 Pr. | 매주 수요일 9 시 30 분 |
| 사도들의 모후 Pr. | 매주 화요일 18 시 30 분 |
| 사랑하을 어머니 Pr. | 매주 화요일 18 시 30 분 |
| 바뇌 성모 기도회 | 매월 1,3 주(토) 10 시 |
| 울뜨레야 | 매월 1 주(목) 성시간 후 |

2026 년 밤 9 시 주모경 바치기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본당 소식

◎ **전례 안내**
 ▶ 3/1(일) 사순 제 2 주일 미사 (본당 11:00, 공소 17:30)
 ▶ 3/3(화) 사순 제 2 주간 화요일 미사 (20:00)
 ▶ 3/4(수) 사순 제 2 주간 수요일 미사 (11:00)
 ▶ 3/5(목) 사순 제 2 주간 목요일 미사 (19:00)
 ▶ 3/7(토) 성모 신심 미사 (11:00)
 ▶ 3/8(일) 사순 제 3 주일 미사 (본당 11:00, 공소 17:30)

◎ **사순시기 성체조배**
 사순시기 동안 주일미사 20분 전부터 성체조배를 합니다.
 성전에서는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 (매주 금요일 19:30)**
 3/ 6 꾸리아/바뇌 기도회 : 해설-이인선, 십자가 복사-신승훈,
 초복사-김경희, 김영미

3/13 울뜨레야
 3/20 주일학교 자모회/성가대
 3/27 복사단
 4/ 3 구역장

◎ **나의 수호 성인 이야기**
 오늘 수호성인 이야기는 <성녀 사라>입니다.
 다음주는 <성녀 루시아>입니다.

◎ **2025년 시니어 소득 신고**
 65세 이상 교우분들(공소포함)의 소득 신고를 위해
 이승우 리차드 형제가 수고해 주십니다.
 준비된 서류를 3/29(일)까지 재정분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Daylight Saving 3/8(일)**
 다음주 새벽 2 시가 3 시로 빨라집니다.

단체소식

◎ **부활 대축일 행사 경품 및 기금 후원 안내**
 주님 부활의 기쁨을 더할 여러분의 소중한 나눔을 기다립니다.
 후원내역: 기금 및 행사 경품용 물품(상품권, 생활용품)
 접수 마감: 3/29(일)
 접수담당: 행사분과 또는 본당 사무실
 문의: 행사분과장 채병두 베네딕도 289-990-5375

◎ **은빛모임**
 오늘 은빛모임은 '쉽고 재미있는 성경 퀴즈쇼'입니다.

◎ **울뜨레야**
 3/5(목) 19시 미사 후 울뜨레야가 있습니다.

◎ **꾸르실리스마 산상 십자가의 길**
 일시: 3/14(토) 오후 1:30
 장소: 해밀턴 성 유대철 베드로 성당 야외 십자가의 길
 많은 꾸르실리스마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 **꾸리아**
 3/8(일) 13시에 하상실에서 꾸리아가 있습니다.

공소 소식

◎ **십자가의 길 안내(사순시기)**
 3/1, 3/8, 3/15, 3/22 오후 4 시 40 분부터 시작 예정

◎ **공소 판공성사** 3/8, 3/15 미사 시작 30 분전부터

◎ **3 월 축일자**
 3/30 김재근 조시모

친교식사 및 제대꽃

오늘 친교식은 1 구역에서 "황태 콩나물국"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순시기 제대꽃은 하지 않습니다.

3/8: 4 구역 3/15: 3 구역 3/22: 5 구역

구역 모임 소식

이달의 묵상 주제
‘하느님의 영광’ (요한 11,1-45)

1 구역:
 2 구역: 3/14(토) 친교실 11:00
 3 구역: 3/14(토) 친교실 19:00
 4 구역: 3/ 8(일) 친교실 13:00
 5 구역: 3/ 7(토) 손정일 미카엘 18:00
 6 구역: 3/28(토) 이창전 프란치스코 18:00
 7 구역:

사순절의 기도 이해인 수녀

사랑하는 것은 죽는 것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
 당신을 위해서 매일 제 십자가를 지는 것.

주여, 언제나 자기를 방어하고
 사소한 일에도 누구에게나 지려고 하지 않는
 승자의 오만 위에 굳두서서
 살지도 죽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는 나에게
 죽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여, 나에게서는 당신의 굳셈보다는 약함이
 무한한 약함이 필요합니다.
 저주를 당해도 비난치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항거치 않고
 죽임을 당해도 원망치 않는 사랑에 찬 약함이
 이웃에게 지지 앓겠다고 발버둥치고
 늘 머리를 쳐드는 나의 오만을
 당신의 약함으로 부끄럽게 해 주십시오.

삼중기도

○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성모송)
 ○ "주님의 종이오니
 ●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성모송)
 ○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성모송)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수난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우리들의 정성

| | | | |
|-------------------------|---------|------|--|
| 지난 주 정성 (미사 참례자: 143 명) | | | |
| 주일헌금 | \$1,520 | 교무금 | |
| 감사헌금 | | 성전건립 | |

◎ **3 월 축일자 (7 명)**
 3/ 7 테오필로(이정길) 3/12 세라피나(임선녀)
 3/19 요셉 (정시안, 조용구, 조운형, 이인규)
 3/25 그라시아(김경희)

전례봉사자

| 날짜 | 해설 | 복사 | 독서자 | 봉헌자 |
|------|--------------|--------------------------------------|---------------------------------|---------------------|
| 3/ 1 | 김의수 안드레아 | 유세진 라파엘, 이준규 안드레아 고동연 미카엘, 이준우 제노 | 1 독서: 권희진 요안나 2 독서: 하유선 라파엘라 | 김한욱 에릭 채정희 올리비아 |
| 3/ 8 | 김성수 베드로 | 이지민 이사벨라, 이소민 그레이스 | 1 독서: 이인선 쟼마 2 독서: 박규혜 카타리나 | 권희진 요안나 하유선 라파엘라 |
| 3/15 | 이은영 힐데가르트 | 최다인 안나, 김규리 라파엘라 | 1 독서: 김의수 안드레아 2 독서: 박혜영 수산나 | 이인선 쟼마 박규혜 카타리나 |

“변하지 않는 것을 보며 신앙의 산을 오르자”

권순호 알베르토 신부
전산홍보 국장

프랑스 화가 폴 세잔은 고향의 생트 빅투아르산을 평생 60 번 넘게 그렸다고 합니다. 빛과 계절에 따라 같은 산이 전혀 다르게 보이지만, 그는 변하는 겉모습 속에서 변하지 않는 본질을 붙들고자 했습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신앙의 여정을 산 오르기에 비유했습니다. 산기슭에서는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하며 기쁨으로 걷지만, 중턱에 이르면 안개가 자욱하고 길이 험해져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오르면 마침내 정상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며 하느님과 하나가 됩니다. 성인은 이를 평화, 조명, 일치의 세 단계로 묘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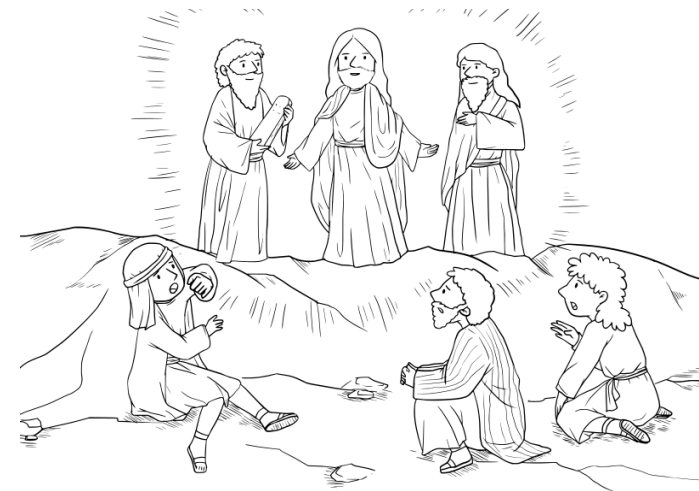
예수님께서도 세 산을 오르십니다. 오늘 복음의 변모의 산, 그리고 겿세마니의 산과 골고타의 산입니다. 변모의 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우리도 신앙의 여정 초기에 비슷한 순간을 경험합니다. 기도가 응답받고, 하느님이 가까이 느껴지는 순간들입니다. 피정에서, 성체 조배에서, 미사에서 어떤 감동의 순간을 체험하고 베드로처럼 우리도 말합니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 이 순간에 영원히 머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겿세마니에서는 예수님이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셔도 하늘은 침묵합니다. 제자들도 잠듭니다. 우리도

신앙의 여정 중간에 비슷한 순간을 겪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느님이 멀게만 느껴지고, 온갖 근심과 시련 속에 홀로 남겨진 것 같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그랬듯이 이때 우리는 좌절하고 맙니다.

골고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주님, 왜 저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마치 버림받고,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예수님은 이 완전한 절망의 순간에 하느님 아버지와 가장 깊이 하나가 되십니다. 어둠속에서도 예수님은 아버지 하느님을 끝까지 신뢰하십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함께 계심을 믿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 가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십니다.

사순 시기는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보는 훈련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들이 눈을 들어 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어떠한 상황이든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입니다. 위로의 산이든 침묵의 산이든, 고통의 산이든 그 어디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순 시기의 산을 오릅니다. 그 길의 끝에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사순 제 2 주일 (2026. 3. 1.)

제 1 독서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12,1-4
 화답송 시편 33(32),4-5,18-19,20 과 22(◎ 22 참조)



후렴.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 하신 일 모두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정을 좋아하시네. 그분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
-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시네. ◎
- 주님은 우리 도움, 우리 방패.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당신 자애를 저희에게 베푸소서. ◎

제 2 독서 사도 바오로의 티모테오 2 서 말씀입니다. 1,8-10

- 복음 환호송
-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 복 음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7,1-9



대 칠 주 보

선포와 나눔의 해
2026 사목지침

<http://cafe.daum.net/stpeteryu>

St. Peter Yu Catholic Church 6 Heath St. Hamilton ON L8H 3Y5